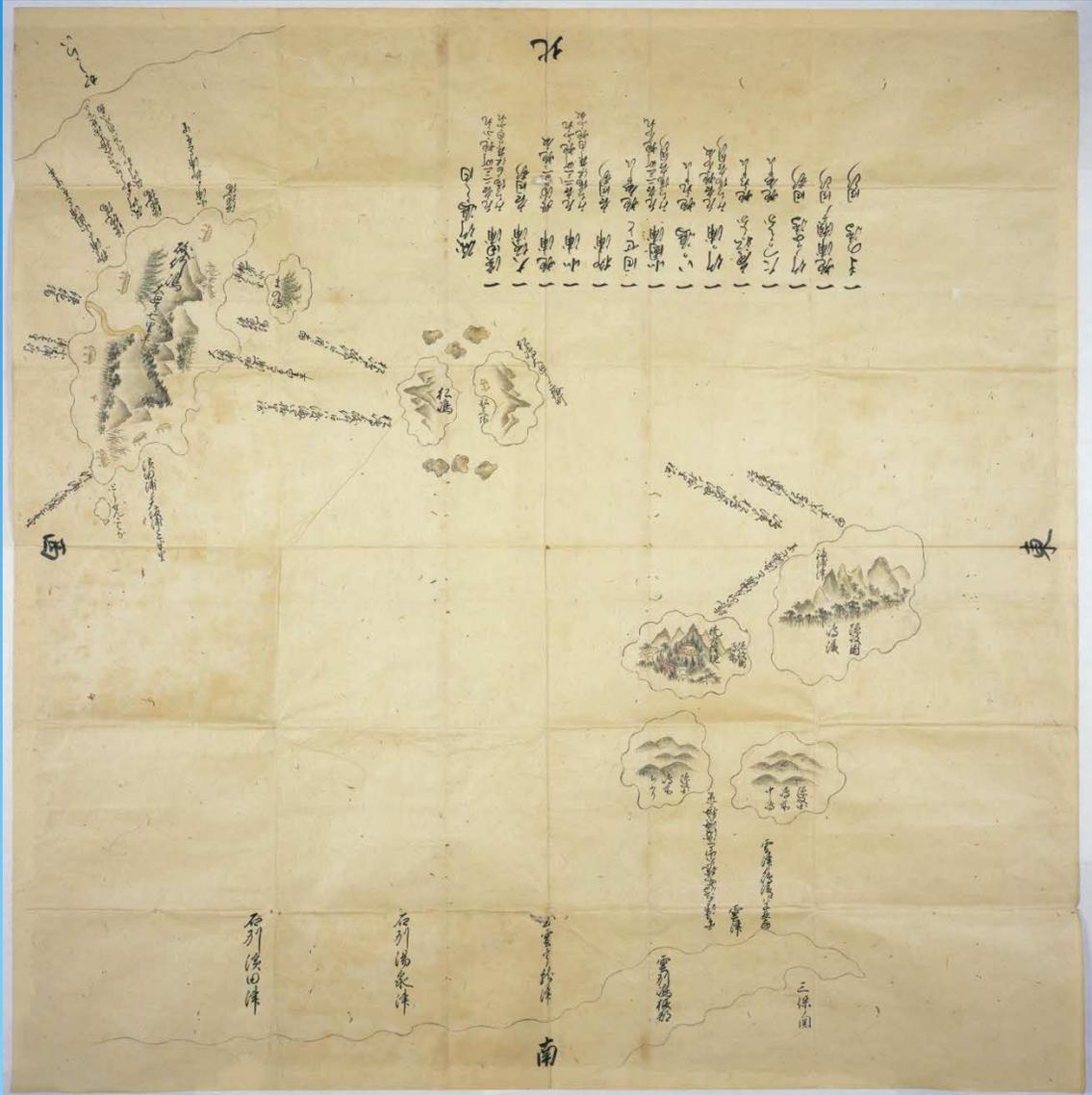


다케시마

~일본 영토임을 배우자~



다케시마 지도 (돗토리 현립박물관 소장)

1696년 돗토리번 소속 고타니 이헤에씨가 제출한 지도 그림입니다. 육지에서 오키 섬을 거쳐,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 그리고 "이소타케시마"라고도 불린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까지 눈에 띄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대해
7개 패널로
소개할게요!



일본 영토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위치는

- 북위 37도 14분
- 동경 131도 52분
- 오키에서 158km
- 시마네 반도에서 211km

다케시마의 면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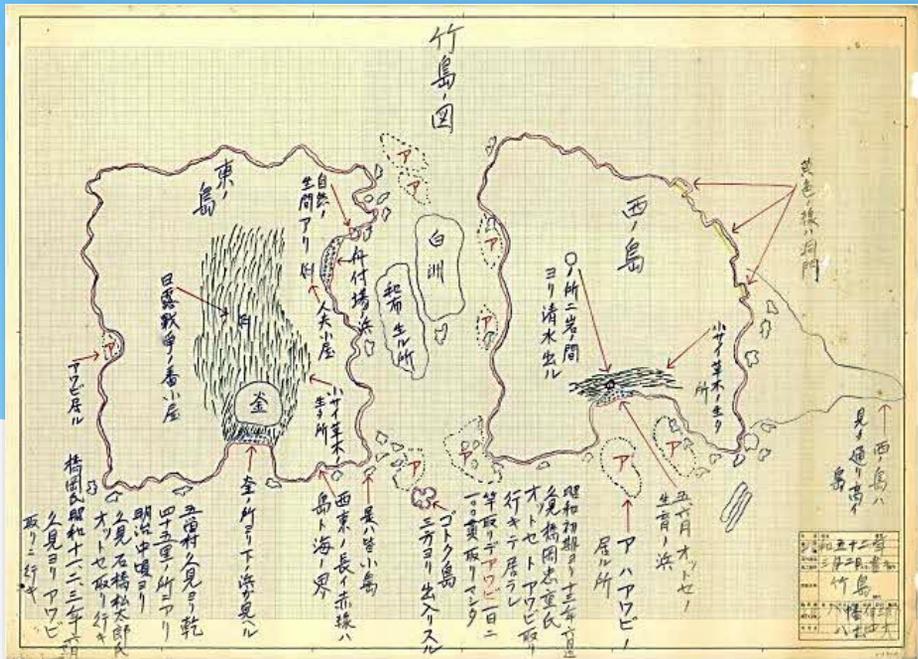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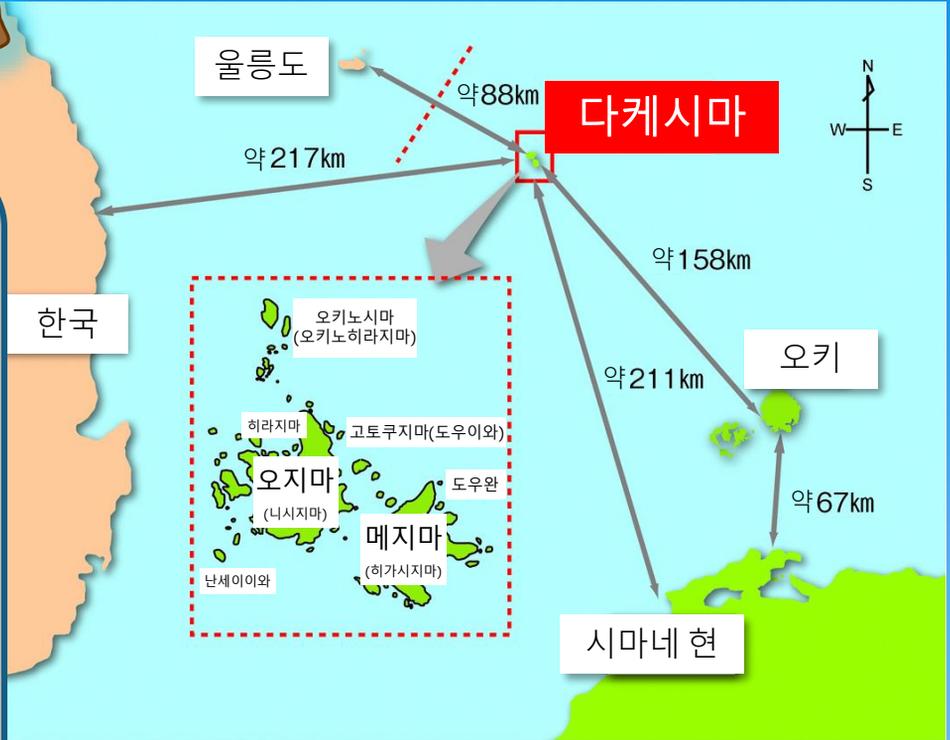
- 약 20만 제곱미터
(도쿄 돔 약 5배 상당)

다케시마의 특징은

- 송곳 같이 생긴 화산섬
- 벼랑 끝이 바로 바다
- 식물과 생수가 거의 없음

다케시마의 주소는

〒685-0000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국유지 무번지



'다케시마 지도'

1920년대에 다케시마를 왕복한 오키출신 故야와타 이사부로씨가 1977년에 그린 지도입니다.

일본 영토인데도 갈 수 없는 섬 ‘다케시마’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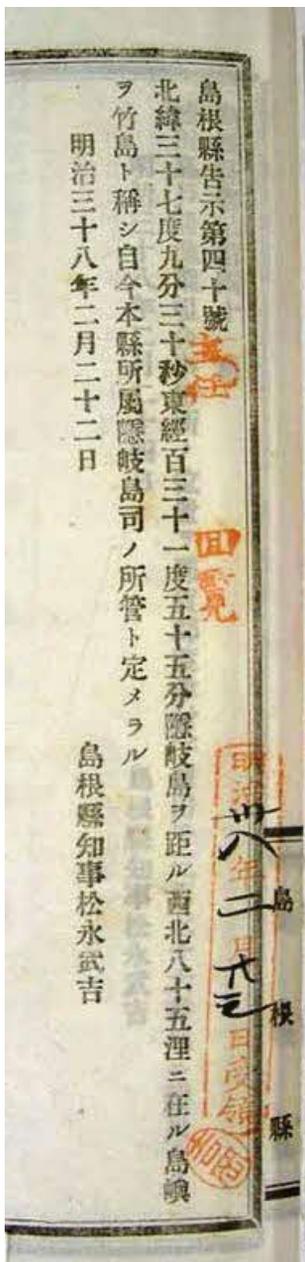
다케시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국제법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가 다케시마를 점령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사람들만 강치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905년 1월에 내각은 회의에서 다케시마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에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오키군이 관할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 조례가 가결된 시마네현 의회의 장면.

시마네현 공고가 선포된 지 100년이 지난 2005년에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홍보탑’(JR 마쓰에 역 앞).



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

옛 다케시마와 일본인

다케시마에서 오키 주민들이 강치를 잡거나 미역을 따는 모습입니다.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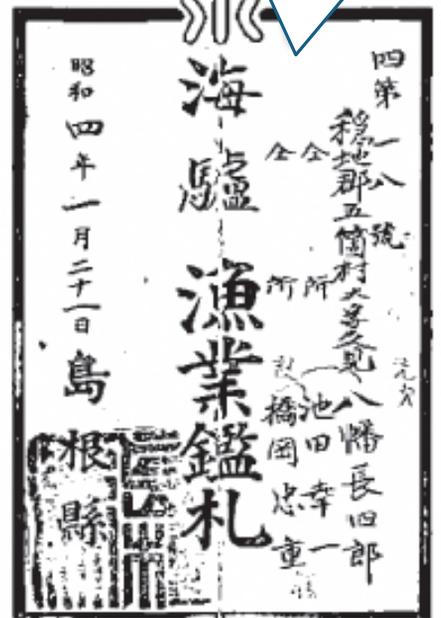


1934년



1954년

시마네현이 발행한 강치 사냥 허가증입니다.



1900년경부터는 일본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일본인은 이렇게 관계가 깊구나!



다케시마로 갈 수 없게 된 이유

애당초...

2차대전이 끝나고 평화조약(※1)이 체결되었습니다. 학국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기 영토라 미국한테 조약문 초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거부(※2) 하였습니다. 그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이 평화조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조인.

1952년 4월 28일 발효.

제2조(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 미국 정부가 전달한 회답(라스크 서한)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서 삼은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오키지청 관할 밑에 있었으며, 지금까지 조선이 영유에 관한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 못함.’

라스크 서한이란?

한국이 미국으로 보낸 평화조약 초안 수정에 관한 요망서에 대해서, 1951년 8월 1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답한 문서. 그 때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국무장관 대리로 싸인을 했으므로 ‘라스크 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 통보없이 ‘이승만 라인’ (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한다) 을 선언하고 (해양주권 선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옥지로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케시마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라인’ 안쪽에 다케시마를 넣었습니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일본쪽이 다케시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력 점령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은 다케시마 문제

1

다케시마와 그 주위(12해리)에 갈 수 없게 되었다 !

※1해리 = 1852m

한국은 해양경찰을 주둔시키고, 등대, 숙소, 부두 등을 아무 연락 없이 건설하면서, 선박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한국인 관광객 상륙을 허가하는 반면, 일본인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어업을 못한다 !

다케시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는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한 양쪽이 어업을 할 수 있게 '중간 수역'을 규정했는데, 서로 법규가 다르고, 실제로는 일본쪽 어선은 물고기를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 자원이란?

바닷속 및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산물(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네요.

3

바다자원 조사를 못하는 이유 !



2006년, 일본 해양경찰청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려 갔으나, 한국은 경비선을 출동시키면서 방해를 시도했으니, 결국은 조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방적으로 '종합해양 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바다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다케시마가 가진 영토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이 재판 개시에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1954년과 1962년, 그리고 2012년에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부탁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 일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본정부의 동향

시마네현의 동향

【다케시마의 날에 관한 법령】

1905년의 시마네현 고지로부터 딱 100년째 되는 2005년에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시마네현은 영유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에 창설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입니다.

판사는 15명이며, 국가간의 국제적인 분쟁을 처리합니다.



외무성에서 발간된 '왜 일본의 영토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다케시마 문제 10개 포인트'



오키노시마-초 동향

오키노시마-초는 다케시마 관련 자료를 수집한 '구미 다케시마 역사관'을 개설하고, 다케시마 어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검증, 학교에서의 향토 교육,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면서,

다케시마에서 이루어진 어업 사실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케시마에 관해서 배웁니다.

다케시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모두가 배웁시다!



by 廣野